



9월 30일 서울 청담동 키스튜디오에서 만난 박칼린 감독이 피아노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칼린 감독은 이날 자신이 슈퍼바이저를 맡은 걸작 뮤지컬 '틱틱볼'을 무대에 올렸다. 박희용 기자 inphoto@donga.com



(맨 위 사진부터 아래로) 박칼린 감독이 연기지도도를 하고 있는 모습. 뮤지컬 '아이다' 오디션장의 박칼린(맨 왼쪽), '남자의 자격'에 출연했을 때의 모습. 사진제공 | 신시컴퍼니·KBS 2TV 화면캡처

“노래로 사람 꿰뚫는다? 맞아요 다 보여요”



남적 '감동 하모니'로 국민 울린 박칼린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남자 그리고 하모니·이하 남적 하모니)'에서 오합지졸 합창단으로 '음악'을 넘어 '인간의 하모니'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43).

개인 인터뷰를 '전혀'라고 할 만큼 사양하는 박칼린 감독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한 달 여에 가까운 설득과 기다림 끝에 결국 9월30일 오후 서울 청담동의 키스튜디오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남적 하모니'는 막을 내렸지만 박 감독의 일상은 여전히 바쁘다. 대학 강의, 개인 레슨, 케이블TV 채널 아리랑TV의 토크쇼 진행. 여기에 9월30일 첫 공연에 들어가는 뮤지컬 '틱틱볼'의 슈퍼바이저까지. 스타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바빠한다.

먼저 '한풀이'를 줬다. 기자들 사이에 "대통령보다 만나기 힘들다"라는 원성(?)이 자자할 정도로 인터뷰를 안 하는 이유부터 물었다.

"원래 안 좋아했어요. 아주 초창기 때부터. 난 굉장히 프라이빗(개인적인)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버스도 택시도 잘 안 다니는 곳에 살고 있을 정도죠."

최근 자신의 관련 기사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넘치는 것을 보고 평소 가까이 지내는 배우 옥주현에게 "넌 이러면서 어떻게 10년 이상을 살았니"라고 푸념했다고 한다.

특히 자신의 신장병 투병에 관한 기사에 대해 "너무 과장됐어요. 난 사람들이 관 찌주는 줄 알았어요. 열 개쯤 오면 그중 하나 고르려고 했더니깐요"라며 크게 웃었다.

'남적 하모니'에 대한 뜨거운 대중의 관심이 고맙기도 하지만 부담이 될 것도 같았다.

"무척 고맙죠. 이런 반응을 기대 못 했으니까요. 하던 대로 움직였을 뿐이고, 이것이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렸다면, 이는 곧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 아닐까요?"

물론 부담도 크다. 길에서 그녀를 알아보고, "사인을 해 달라"거나 불쑥 사진을 찍으러 다가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아니다.

"작품으로서,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사람

노래 들으면 성격·인성 다 보여요 남적, 그래서 '사람'으로 뽑았죠 리더십 철학? 변치 않는 믿음!

뜨거운 관심 옥주현에 부담 하소연 나도 실수 많은 인간인데... 커다란 채찍하나 받은 기분이에요

이 되야겠다는 부담이죠. 나도, 같이 일하는 패밀리로 더 엄격하게 살아야 한다는 고민. 나도 인간이라 분명 실수를 할 텐데 말이죠.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 딱지를 때릴 수도 있고, 스레기를 남 몰래 슬쩍 버릴 수도 있고, 주차 때문에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었어요."

박칼린 감독은 이런 부담을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커다란(두 손을 크게 벌려 보이며) 채찍 하나가 놓여있는 기분"이라고 했다.

● "사실 문만 열고 들어와도 다 보여요"

뮤지컬 배우들 사이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문이 하나 있다. '누구는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 곧바로 사람의 성격과 인성을 꿰뚫어본다'라는 SF소설같은 얘기이다. 의외로 박칼린 감독은 이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보여요.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하나... 사실 노래를 안 들어도, 문만 열고 들어와도 보여요."

'남적 하모니'가 끝난 뒤 출연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을 뽑았나"였다고 한다.

오디션 때만 해도 "누구는 노래를 잘 했는데 떨어졌고, 누구는 못 했는데 합격했다"라는 뒷말이 많았다. 박칼린 감독은 "나머지 부분을 봤다"라고 했다. '노래 보다는 '사람'을 보았다는 말이다.

박칼린 감독이 살아 온 인생을 되돌아 보면 그야말로 '중흥무진'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첼리스트, 판소리, 연극배우, 뮤지컬 음악감독, 연출가, 보컬 트레이너, 작가...

너무 많이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그 중심을 꿰뚫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좋은 일

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라 오히려 대답하기 어렵네요"라며 한 동안 침묵했다.

"첼린지(도전), 그리고 변화. 창의적인 요소. 저에겐 '살아 있다는 느낌'이 중요했어요. 무에서 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도전한다는 것. 그것이 우연히 예술과 연관된 거죠."

박칼린 감독에게 열광하는 것은 천재적인 음악실력 때문만은 아니다. '남적 하모니'를 통해 보여준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카리스마, 탁월한 지도력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상을 볼 수 있었다. 요즘 젊은 여성 사이에 그녀가 '워너비(wannabe: 닮고 싶은 사람)'라고 하니 "아하하!" 웃는다.

"리더는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 재능을 정확히 알아내고, 그것이 발전하도록 계속 끌어줘야 '믿음'이 생기죠. 리더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끝났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 워셔로부터 "내가 워셔라는데 이 정도도 못 하나"라는 질책을 들은 일이 있다. 당시 20대의 박칼린은 "하고 싶은 대로 제일 못 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라고 새파랗게 대답했다.

한 배우는 "박칼린 선생님은 평소에는 참 좋은데 '뭔가를 배우면' 사람이 확 달라진다"고 했다. 그녀는 연습실을 가리키며 "저 문에 들어가면 난 달라진다"라고 했다. "할 때는 열심히, 할 때 열심히"가 모토다.

사실 배우들의 삶 자체가 그렇다. 박칼린 감독도 20년 이상 일을 하면서 긴장과 이완이 몸에 배었다. 1시간이면 될 회의를 2~3시간씩 끄는 걸 참지 못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면 늘 시작과 마칠 시간을 정한다. "세상 어떤 회의든 1시간30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약속한 1시간이 그야말로 물처럼 흘러갔다. 인터뷰가 끝날 즈음 박칼린 감독의 애견 '해태(삼살개)'가 슬그머니 다가와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눕는다.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그녀가 가리켰던 연습실 문이 눈에 들어왔다. 인생에 한번쯤, 저 문을 열고 들어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무척 행운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우리 박칼린 쌤은..."

“내 인생 멘토 칼린쌤, 그녀의 유일한 휴식처는 슈퍼마켓 ㅎㅎ”



옥주현(뮤지컬 배우): 작품에 대한 중요한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을 찾아간다. 내겐 스승님이자 친구이며, 인생의 멘토같은 분이다. 일할 땐 엄격하지만 맥을 방문하면 거의 셰프가 되서 주방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우리 모이면 작품보다는 주로 먹는 이야기를 한다. 선생님의 유일한 휴식처는 슈퍼마켓이다.

“링위의 무게감보다 더 강한 눈빛... 바라만봐도 행복했어요”



서두원(이종격투기 선수): 다들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내가 본 칼린 선생님은 '카리스마'를 넘어서는 분이죠. 말을 안 하고 쳐다만 봐도, 모두가 그분의 눈빛에 동요되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 무게감과 존재감이 링 위에서 상대를 만났을 때하고 비교할 수도 없다. 오디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다. 그냥 마주 대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난 행운아다.

“남적 내내 그녀 눈빛에 취해...음악 영감을 준 고마운 분”



김태원(남적 멤버): 박칼린 음악감독은 '남적' 합창단을 하는 동안 눈빛 하나로 단원들을 끌어왔다. 나 역시 그녀의 눈빛에 취해 있었다. 박칼린은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녀에게 '음'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녀는 눈빛으로 말 이상의 교감을 하는 사람이다. 음악을 하는 나에게도 많은 영감과 자극을 준 고마운 분이죠.

“아단 맞을땐 괴로워도 가장 보고 싶은 칼린 감독님”



최재림(뮤지컬 배우): 박칼린 선생님은 연습 때 배우들을 가르치는 스타일이다. 작품 연습을 하는 건지, 음악레슨을 받는지 헷갈릴 정도다. 하지만 선생님과 작품을 하고 나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낀다. 물론 아단을 맞고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가장 보고 싶은 음악감독이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생명보험협회 상의번호 2010-2864호(2010.8.12)

사망보장은 기본, 실손의료비에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왜 많은 분들이 교보다이렉트 종신보험을 선택했을까요?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유니버설종신보험Ⅱ

교보실손의료보험이란 3만5천 원의 건강보험 과세액이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080-399-0099 KYOBO 교보생명